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 小兒篇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¹

김용진^{1*}

對『孫真人千金方』與『備急千金要方』小兒篇的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¹

金容辰^{1*}

現存 『千金方』 大致有兩種版本, 一是未經宋代校正醫書局校訂的 『孫真人千金方』, 一是經過校訂的 『備急千金要方』. 其中, 『孫真人千金方』 發現未久, 尚未得到正式研究. 於是, 筆者對 『孫真人千金方』 與 『備急千金要方』 的小兒篇進行了比較研究.

結果發現, 兩書不同之處甚多, 尤其於方劑部分被刪除或被增補的處方較多, 所以從某種意義上看, 認為二書屬於不同書籍亦非言過其實. 這說明, 宋代校正醫書局的校訂工作, 在學術之標準化和規範化方面雖有所補益, 但亦非盡善盡美, 尚存在一些問題.

key words : 『孫真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小兒, 比較, 校正醫書局.

I. 序 論

唐代的 『孫真人千金方』과 宋代的 『備急千金要方』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기록된 내용이 다르다. 『孫真人千金方卷第五·少小嬰孺』와 『備急千金要方卷五·少小嬰孺方上·下』라는 卷의 題目만 보아도 다르게 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孫真人千金方』에서는 「新生孩兒初出腹方第二」 變蒸法附라고 한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初生出腹第二」 拭兒口 治生不作聲 斷臍 衣兒 裹臍 甘草湯 朱蜜 哺乳 浴兒法并方 鵝口 治生轉死 相兒壽夭라고 하였고 『備急千金要方』에서

題目은 簡單하지만 구체적인 內容은 明確하게 기록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孫真人千金方』에서의 「癰疽瘰癧方第五」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疽瘰癧第八」로 순서를 바꾸었는데, 序例로 시작하여 아이가 出生하여 驚癇 客忤 등의 위급한 疾患을 먼저 언급하고 傷寒 咳嗽의 呼吸器疾患, 癰結脹滿의 消化器疾患, 癰疽瘰癧의 外科疾患, 小兒雜病 등으로 系統的으로 紀錄하려고 순서를 바꾸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¹⁾라고 하였다.

目次에서도 이러한 差異가 있으므로 本文의 內容에 있어서도 많은 差異가 생길 수 있다고 類推할 수 있었다.

이에 小兒篇에 대하여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에서 削除된 部分과 追加된 部分을 比較하는 方式으로 研究를 進行하고자 한다. 다만 唐代와 宋代의 時代의 背景의 差異로 藥物의 이름과 度量衡은 比較對象에서 除外하기로 한다.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042-280-2626 E-mail : king@dju.kr
접수일(2011년 9월 01일), 수정일(2011년 9월 01일), 게재확정일(2011년 9월 23일)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00024367)”

1) 金容辰,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대한 比較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3). p.4.

II. 『孫真人千金方 卷第五·少小嬰孺』의 比較

1. 序例第一 乳母의 比較²⁾³⁾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卷五에서 한번에 記錄한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上에서는 「序例第一」 擇乳母附, 「初生出腹第二」 拭兒口 治生不作聲 斷臍 衣兒 裹臍 甘草湯 朱蜜 哺乳 浴兒法 井方 鵝口 治生轉死 相兒 壽夭, 「驚癇第三」 中風附, 「客忤第四」 魅病 夜啼 驚啼 附, 「傷寒第五」 寒熱溫瘧附, 下에서는 「咳嗽第六」, 「癰結脹滿第七」 霍亂附, 「癰疽瘰癧第八」, 「小兒雜病第九」로 하여 上下로 區分하여 記錄하였다. 그러나 「癰疽瘰癧」을 第五에서 第八로 位置를 變更한 것 이외에 全體의인 構成에는 커다란 差異가 없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

표 1. 『千金方』 卷五의 目次 比較

孫真人千金方卷第五少小嬰孺
序例第一 乳母
新生孩兒初出腹方第二 變蒸法附
療驚癇病方第三
療客忤方第四
療癰疽瘰癧方第五
治傷寒方第六
療咳嗽方第七
療癰結方第八
孩兒雜病第九
備急千金要方卷五上少小嬰孺方上
序例第一 擇乳母附
初生出腹第二 拭兒口 治生不作聲 斷臍 衣兒 裹臍 甘草湯 朱蜜 哺乳 浴兒法 井方 鵝口 治生轉死 相兒 壽夭 驚癇第三 中風附
客忤第四 魅病夜啼 驚啼附
傷寒第五 寒熱溫瘧附
備急千金要方卷五上少小嬰孺方下
咳嗽第六
癰結脹滿第七 霍亂附
癰疽瘰癧第八
小兒雜病第九

2)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 眞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15~116.
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73~74.
4) 金容辰,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대한 比較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3). p.4.

『備急千金要方』에서 卷五를 上下로 나눈 것은 卷五 한권으로 하면 앞의 婦人篇에서의 二萬餘字에서 一萬八千餘字 보다 많은 分量이 나오기 때문에 各卷의 分量을 調整하기 위하여 上卷은 一萬八千餘字로 하고, 下卷은 一萬四千餘字로 나누었을 것이라고 推測된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三條로 된 論述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五條의 論述과 二首의 處方으로 構成하였다.

새롭게 追加된 論述은 生後六十日에 臍子가, 百日에 任脈, 百八十日에 尻骨이, 二百一十日에 掌骨이, 三百日에 臑骨이, 三百六十日에 膝骨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 것과 變蒸과 관련된 論述 二首의 論述이다. 變蒸과 관련된 一首의 論述은 「初生出腹第二」에 記載하였다.

아울러 小兒變蒸을 治療하는 紫丸과 黑散의 處方을 追加하였다. 이는 宋代에 이르러 變蒸에 대한 認識이 發達하여 治療處方까지 다양하게 使用하였음을 證明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新生孩兒初出腹方第二 變蒸法附의 比較⁵⁾⁶⁾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에서 같은 內容을 다르게 記錄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凡新生出腹, 以指拭兒口中惡血去, 便洗浴斷臍. 斷臍竟, 縑抱畢, 未可與朱蜜也. …… 與朱蜜法不宜多, 多則令兒脾胃多冷, 腹脹, 喜陰癰, 氣急, 變噤瘧而死也.”라고 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입에 있는 惡血을 닦아주고 洗浴을 하고 배꼽을 자르고 포대기에 싸아준다. 그리고 甘草 끓인 물을 먹여 心神이 지혜롭고 病이 없게 하며, 朱蜜을 먹여 心神魂魄을 鎮定시키는 方法을 使用하여야 한다. 그리고 朱蜜法을 너무 많이 하면 腹脹, 陰癰, 氣急, 噤瘧 등이 생겨 죽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論曰: 小兒初生, 先以

5)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 眞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16~122.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74~77.

綿裹指, 拭兒口中及舌上青泥惡血, 此爲之玉衡. …… 兒新生三日中, 與朱蜜者不宜多, 多則冷兒, 脾胃冷腹脹, 喜陰癘, 氣急變噤瘞而死.”라고 하여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입안의 靑泥惡血을 닦아주는 拭口(玉衡이라고도 한다.)를 하여야 아이가 울게 되고 그 후에 아이를 씻기고 臍帶를 잘라주어야 한다. 裹臍法으로 배꼽을 잘 만들어 주고 甘草湯을 주고 나중에 朱蜜을 주어야 心神과 魂魄을 安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內容으로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文章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만 같고 細部の인 內容에서는 많이 달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아이의 입을 빨리 닦아 주어야 하고, 먼저 씻긴 후에 臍帶를 잘라야 하는 등의 醫學的 知識이 發達하여 새로운 內容을 사용하여 한다고 하여 具體的인 文章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史料된다. 이는 新生兒의 處置에 있어서 宋代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 發展된 內容이 『備急千金要方』에 反映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小兒滿三十日乃當哺, …… 腹中皆痰滯也. 以四物紫雙丸微下之, 節乳數日便自愈. 小微寒熱, 亦當爾利之, 下然後乃差.”라고 하여 小兒에게 너무 三十日이 지나서 飲食을 먹어야 하고 飲食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억지로 먹여 痰滯이 생기면 四物紫雙丸으로 약간 瀉下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兒生十日始哺如棗核, 二十日倍之, 五十日如彈丸, 百日如栗. 若乳汁少, 不得從此法, 當用意小增之. 若三十日而哺者, 令兒無疾, 兒哺早者, 兒不勝穀氣, 令生病, 頭面身體喜生瘡, 愈而復發, 令兒尪弱難養. 三十日後, 雖哺勿多, 若不嗜食, 勿強與之, 強與之不消, 復生疾病. 哺乳不進者, 腹中皆有痰滯也, 當以四物紫丸微下之, 節哺乳, 數日便自愈. 小兒微寒熱, 亦當爾利之, 要當下之, 然後乃瘥.”라고 하여 아이가 出生하여 十日에 棗核만큼으로 始作하여 百日이 되면 栗 정도의 飲食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三十日이 되어 飲食을 먹어야 하고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 文章에서도 大略的인 內容은 같으면서도 具體的으로는 다르게 記錄하였다.

이들과 類似한 文章으로 『備急千金要方』에서 “凡乳

兒不欲太飽, 飽則嘔吐, 每候兒吐者, 乳太飽也, 以空乳乳之即消, 日四. 乳兒若臍未愈, 乳兒太飽, 令風中臍也. 夏不去熱乳, 令兒嘔逆, 冬不去寒乳, 令兒咳痢. 母新房以乳兒, 令兒羸瘦, 交脛不能行. 母有熱以乳兒, 令變黃不能食. 母怒以乳兒, 令喜驚發氣疝, 又令上氣疝癲狂. 母新吐下以乳兒, 令虛羸. 母醉以乳兒, 令身熱腹滿.”이라고 하여 젖을 너무 많이 먹이면 아이가 嘔吐를 하게 되고 어머니가 熱이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하는 등의 상태에 따라 아이가 놀라거나 氣疝 등의 症狀이 생기게 된다는 記錄을 하였는데 이는 『孫真人千金方』에는 없는 文章이다.

浴兒法은 『備急千金要方』에서 “凡兒冬不可久浴, 浴久則傷寒. 夏不可久浴, 浴久則傷熱. 數浴背冷, 則發癘. 若不浴, 又令兒毛落. 新生浴兒者, 以豬膽一枚, 取汁投湯中以浴兒, 終身不患瘡疥. 勿以雜水浴之.”라고 하여 잘못된 浴兒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內容을 追加하였다.

相兒壽夭法에서는 “兒生枕骨不成者, 能言而死.” 등의 十一首는 같지만 “兒初生叫聲連延相屬者, 壽.” 등의 二十首는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追加된 것이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小兒生死治之法: 常候視兒口中懸雍前上馬有赤貌者以摘取, 少溫摘取頭決潰, 勿令血入咽, 入咽殺兒, 急急慎之.”이라고 한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小兒生輒死治之法: 當候視兒口中懸雍前上脰有泡者, 以指摘取頭, 決令潰去血, 勿令血入咽, 入咽殺兒, 急急慎之.”라고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孫真人千金方』에만 있는 文章과 內容은 아래와 같다.

“小兒始生, 當即舉之, 舉之遲晚, 則令寒中腹雷鳴. 先浴之, 然後乃斷臍. …… 又不當數數浴, 背冷則發癘. 若不浴, 小兒毛落也.”라고 하여 斷臍의 길이는 足趺까지 하여야 하고, 鬚줄을 자르고 씻기면 鬚줄로 물이 들어가 腹餒痛天亂啼呼, 面目靑黑하게 되니 灸粉絮로 熨法을 사용하여야 하고, 臍腫한 경우에 膿을 뜨거나 熨法을 使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凡小兒之癩有三種：有風癩，有食癩，有驚癩也。然風癩驚癩時時有耳，十人之中，有一兩是風驚癩者。凡寒發熱癩者，皆是食癩也。驚癩當按圖灸之，風癩當與豬心湯，食癩當下乃愈，紫雙丸佳。”라고 하여 小兒에는 三種의 癩이 있는데 風癩은 豬心湯, 食癩은 紫雙丸을 使用하고, 驚癩은 灸法을 使用하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凡小兒始生肌膚未成，不可暖衣。暖衣則令筋骨緩弱，不見日則令肌膚脆軟，便易中傷。皆當以故絮衣之，勿新綿也。天和暖知風之時，令母將於日中嬉戲，數見風日，則血凝氣剛，肌肉牢密，堪耐風寒，不致疾病。若藏在帳中，重衣溫暖，譬猶陰地之草，不兒風日，軟脆不堪風寒也。”라고 하여 小兒는 肌膚가 完전하지 못하므로 옷을 따듯하게 입히지 말고 마땅히 故絮를 입혀야 한다고 하였고, 날이 좋을 때 아이가 햇빛을 보아 血凝氣剛하고 肌肉牢密하여 風寒에 잘 견디게 되어 疾病을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凡兒不能乳哺，肯紫雙丸下之。小兒氣盛有病，但下之，必氣所損。若不時下，則將成病，固難療矣。下，四味雙丸最善，雖下不損人，足以去疾耳。若四味不時下者，當以赤丸下之。赤丸不下，當倍之。若已下而有餘熱不盡，當按方作龍骨湯，稍稍服之。並摩生膏。風癩亦當下之，然當以豬心湯下。驚癩但炙手摩膏，不可大下也。驚癩心氣不定，下之內虛，益令甚爾。驚癩甚者，特爲難治，故養小兒常當口慎驚，勿令開大聲。抱持之間，當安徐徐，勿令怖也。又天雷時塞耳，並作餘細聲以亂之也。”라고 하여 小兒가 乳哺하지 못하면 肯紫雙丸을 使用하고, 四味不時下하면 赤丸으로 瀉下하고 風癩에는 豬心湯으로 瀉下하고, 驚癩에는 手摩膏로 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凡小兒所以風者，衣暖汗出，風因而入也。……脈在掌中，尚可早療，若至指則病增也。凡小兒腹中有疾生，則身寒熱，寒熱則血脈動，動則心不定而易驚之，驚則癩發速也。”라고 하여 風癩 驚癩 食癩과 小兒의 尿黃而臭, 小兒有癩, 小兒腹中有疾生 등의 病症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서 “『神農本草經』云：小兒驚癩有一百二十種……治其時行，節度故如大人法，但用藥分劑，少暴藥

小冷耳.”라고 하여 『神農本草經』의 小兒驚癩部分을 引用하였다.

이상과 같이 많은 부분을 削除하였다.

『備急千金要方』에만 있는 文章과 內容은 아래와 같다.

『備急千金要方』에서 “凡乳母乳兒，當先極揉，散其熱氣，勿令汁奔出，令兒噎，輒奪其乳，令得息，息已，復乳之，如是十返五返，視兒飢飽節度，知一日中幾乳而足，以爲常。又常捉去宿乳。兒若臥，乳母當以臂枕之，令乳與兒頭平乃乳之，令兒不噎。母欲寐則奪其乳，恐填口鼻，又不知飢飽也。”라고 하여 乳母는 아이를 잘 어루만져 熱氣를 發散시켜 주어야 하고 하루에 몇 번 젖을 먹어야 充分한가를 파악하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 젖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論曰：兒三歲以上，十歲以下，視其性氣高下，即可知其夭壽大略。兒小時識悟通敏過人者，多夭，大則頂託顏回之流是也。小兒骨法，成就威儀，回轉遲舒，稍費人，精神雕琢者，壽。其預知人意，回旋敏速者，亦夭。即楊修孔融之徒是也。由此觀之，夭壽大略可知也，亦油梅花早發，不睹歲寒，甘菊晚成，終於年事，是知晚成者，壽之兆也。”라고 하여 小兒가 三歲 以上이거나 十歲 以下일 때에 性氣의 高下를 보아 大略의인 壽夭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부분을 새롭게 追加하였다.

이로보아 많은 부분을 削除하고 새롭게 追加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을 보면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書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즉 校正醫書局에서의 校訂作業이 學問의 標準化와 規格化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만, 原本文書와 다른 부분이 많은 것은 原本文書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編纂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즉 孫思邈의 著述意圖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校正醫書局의 校訂作業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校正醫書局의 校訂이전의 版本이 發見된 『傷寒論』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內容分析을 할 필요가 있다고 思料된다.

3. 療驚癇病方第三의 比較7)8)

『孫真人千金方』에서는 癇에 대한 全般的인 說明으로 始作하여 候癇法, 灸法, 五臟癇候, 六畜癇候, 診候小兒法과 處方의 順序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癇에 대한 全般的인 說明에서 아래의 文章들을 追加하였다.

“『神農本草經』說：小兒驚癇有一百二十種，其証候微異於常，便是癇候也。初出腹，血脈不斂，五臟未成，稍將養失宜，即爲病也。時不成人，其經變蒸之後有病，餘証並寬，惟中風最暴卒也。小兒四肢不好驚掣，氣息小異，欲作癇，及變蒸日滿不解者，並宜龍膽湯也。”라고 하여 120여종의 小兒驚癇은 血脈이 수렴되지 못하고, 五臟이 完成되지 못하고, 養生이 잘못되어 생기는 것이라는 部分을 追加하였다.

“凡小兒之癇有三種，有風癇，有驚癇，有食癇。……驚癇心氣不定，下之內虛，益令甚爾。驚癇甚者，特爲難治，故養小兒，常慎驚，勿令聞大聲，抱持之間，當安徐勿令驚怖。”라고 하여 小兒에 風癇, 驚癇, 食癇의 症狀와 治療法에 대하여 說明하였다.

이어서 “凡養小兒，皆微驚以長其血脈，但不欲大驚，……又乳哺小兒常令多少有常劑，兒漸大當小小增之，若減少者，此腹中已有小不調也，便微服藥，勿復哺之，但當與乳，甚者十數日，微者五六日止，哺自當如常。”라고하여 아이가 立夏後에 병이 들면 除熱湯으로 沐浴시키고, 除熱散을 뿌려주고, 除熱赤膏를 발라주면 된다고 하였고, 아이의 옷을 너무 얇게 입히면 젖을 消和시키지 못하여 癇이 될 수 있으니 將紫丸을 조금씩 먹여 약간 瀉下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울에 瀉下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지만 여름에 瀉下하는 것은 治療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가 병이 있으면 不可不 瀉下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若都不肯食哺，而但欲乳者，此是有癇，爲疾重要，當下之，……令胃氣平和，若不節乳哺，則病易復，復下之則傷其胃氣，令腹脹滿，再三下之尚可，過則傷矣。”라고 하여 만약 飲食을 먹지 않고 젖만 먹으

려고 하는 것은 癇이 있는 것이니 不可不 瀉下시켜야 하는데 瀉下시키지 않으면 寒熱 또는 吐하면서 癇이 되거나 혹은 下痢가 되니 빨리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이의 대변이 黃色이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배에 伏熱이 있는 것이므로 龍膽湯을 사용하고 白色으로 식초냄새가 나는 것은 消和되지 않는 것이므로 紫丸을 服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凡小兒有癇，其脈大必發癇，此爲食癇，下之便愈，……凡小兒腹中有疾生，則身寒熱，寒熱則血脈動，動則心不定，心不定則易驚，驚則癇發速也。”라고 하여 小兒가 癇이 있는데 脈大하면 食癇이 될 수 있고 이를 瀉下시켜야 하는데 너무 빨리 瀉下시키면 病을 더욱 惡化시킨다고 하였다. 아울러 아이의 배에 病이 생기면 몸에 열이 나고 血脈이 動하게 되고 心不定하여 놀라게 되어 癇이 發生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候癇法과 活用할 수 있는 處方을 記錄하면서 大黃湯, 白羊藜湯, 增損續命湯, 治少小中風狀如欲絕湯方, 二物驢毛散方, 鎮心丸, 丹參赤膏方, 五物甘草生摩膏方의 八首의 處方을 追加하였다. 處方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는 『孫真人千金方』의 五物桂湯方을 桂枝湯으로 바꾼 것이 있다.

이어서 灸法을 說明하면서 『孫真人千金方』의 “癇發平旦者在足少陽，日中發者在手太陽，暮發者在足陽明，黃昏發者在足太陽，半夜發者在足少陽，日辰伏發者在足厥陰。”을 『備急千金要方』에서 “癇發平旦者，在足少陽。晨朝發者，在足厥陰。日中發者，在足太陽。黃昏發者，在足太陰。人定發者，在足陽明。夜半發者，在足少陰。”이라고 하여 그 內容을 바꾸었다. 發作時間에 따라 뜯 治療하는 經絡을 바꾼 理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研究를 必要로 한다.

4. 療客忤方第四의 比較9)10)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客忤 魅病 夜啼 驚啼 瘡病 등에 대하여 一貫性이 없이 記錄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客忤에 대한 論과 處方과 咒客忤法을

7)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22~128.

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77~82.

9)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28~132.

1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82~84.

記錄하고 이어서 小兒魘方, 小兒夜啼方, 治小兒驚啼方的 順序로 記錄하였다.

『孫真人千金方』의 “治少小兒人來卒不佳, 腹中作聲者, 二物燒髮散方 用向來者人肉上髮十莖, 斷兒衣帶少許, 合燒細末, 飲兒即愈. …… 又方 以妊娠時飲食偏有所思物, 以哺兒則愈. …… 又臘月縛豬繩灰服之. …… 治小兒瘡方 竈突中灰三指撮, 鹽等分服之, 乳下.”의 文章을 削除시키고, 客忤 部分의 論에서 “少小中客之爲病, 吐下青黃赤白汁, 腹中痛, 及反倒偃側, 喘似癩狀, 但目不上插少睡耳, 面變五色, 其脈弦急, 若失時不治, 小久則難治矣. 欲療之方, 用豉數合, 水拌令濕, 搗熟, 丸如雞子大, 以摩兒肉及手足心, 各五六遍畢, 以丸摩兒心及臍, 上下行轉摩之, 食頃, 破視其中, 當有細毛, 卽擲丸道中, 痛卽止.”를 追加하고, 一物豬通浴湯, 二物黃土塗頭方, 治小兒中馬客忤而吐不止者方的 處方을 追加하였다. 小兒魘方에서는 “治魘方伏翼, 熟咀哺之.”라는 文章을 追加하였고, 小兒夜啼方에서는 千金湯을 追加하였다.

5. 療癰疽瘰癧方第五의 比較(11)(12)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疽瘰癧第五」에 있던 것으로 處方 九首를 引고 있다.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疽瘰癧第八」로 옮기고 論一首와 方六十三首, 灸法一首로 高쳐놓았다. 아래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處方이 상당히 많아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備急千金要方』에서 處方 六十三首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七十三首가 있어, 校正醫書局에서 正確하게 校訂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난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는 “論曰: 小兒頭生小瘡, 浸淫疽癢, 黃膏出不生痂, 連年不瘥者, 亦名妒頭瘡, 以赤龍皮 湯及天麻湯洗之, 內服漏蘆湯, 外宜傳飛鳥膏散, 及黃連胡粉水銀膏散.(方在二十三卷)”이라는 論과 治丹毒大赤腫 身壯熱 百治不折方, 麻黃湯方, 麻黃湯方, 拓湯治方, 治小兒溺竈丹 初從兩股及臍間起 走入

陰頭皆赤方, 治小兒丹毒方, 治小兒赤游腫 若遍身 入心腹 卽能殺人方과 又方, 治小兒半身皆紅赤 漸漸長引者方, 治小兒身赤腫起者方과 又方, 治小兒卒腹皮青黑方과 灸法, 治小兒火灼瘡 一身盡有如麻豆 或有膿汁 乍痛乍癢方, 治小兒瘡初起 燦漿似火瘡 名曰燦瘡 亦名爛瘡方과 又方, 水銀膏方, 治小兒上下遍身生瘡方, 苦參湯, 治三日小兒頭面瘡起 身體大熱方, 治小兒頭面身體悉生瘡方, 治小兒風瘙癢疹方과 又方, 澤蘭湯과 又方, 治小兒頭瘡 經年不瘥方과 三首의 又方, 小兒頭瘡方과 二首의 又方, 苦參洗湯方, 治小兒頭上惡毒腫瘡 諸瘡方, 治小兒禿頭瘡方과 又方, 治小兒頭禿瘡方과 又方, 治小兒頭禿瘡 無發苦癢方, 一物楸葉方, 治小兒頭不生髮方, 治小兒疽癩方, 治小兒惡瘡方, 治小兒月蝕瘡 隨月生死方, 治月蝕 九竅皆有瘡者方과 又方, 治小兒浸淫瘡方, 治小兒黃爛瘡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疥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頭面瘡疥方, 治小兒濕癬方과 四首의 又方, 治小兒身上生赤疵方, 治小兒身上有赤黑疵方과 又方, 治小兒疣目方的 六十三首를 追加하였다.

6. 治傷寒方第六의 比較(13)(14)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傷寒第五」로 되어 全體的인 順序가 바뀐 部分이다. 그러나 全般的인 內容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孫真人千金方』의 三十二首의 處方에서 芍藥解肌湯을 芍藥四物解肌湯으로, 二物雷丸通汗散方을 二物通汗散方으로, 黃連粉方을 三物黃連粉方으로 名稱을 달리한 것이 있고, 小兒身黃 擣薤根汁澄清 滴兒鼻中 如大豆許와 治少小兒中人忤 一物豬通浴方과 治少小兒中人忤 馬通浴兒方과 丹參赤膏方과 五物甘草生摩膏方과 地膚湯의 六首의 處方을 削除시키고, 李葉浴湯方, 青木香湯, 蜀漆湯方, 竹葉湯, 治小兒連壯熱 實滯不去 寒熱往來 微驚悸方, 調中湯, 治小兒傷寒發黃方에 二首의 又方, 犀角飲子方的 十首의 處方을 追加하여 모두 三十六首의 處方을 실었다. 『備急千金要方』

11)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32~134.

1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92~96.

13)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34~139.

1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84~87.

에는 三十首의 處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三十六首의 處方이 記錄되었다.

7. 療咳嗽方第七의 比較(15)16)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咳嗽第六」에 있는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卷五下少小嬰孺方下·咳嗽第六」으로 옮기면서 九首의 處方에서 五味湯을 削除시키고, 治小兒大人咳逆短氣 胸中吸吸 呵出涕唾 嗽出臭膿方과 治小兒寒熱咳逆 膈中有乳癖 若吐不欲食方과 射干湯과 又方, 杏人丸과 又方의 六首의 處方을 追加하여 十四首의 處方으로 構成하였다. 論에서는 竹瀝湯의 마지막 부분에서 “後經一日, 次與後方, 得吐, 便都不復發方”라는 文章을 제외시켰다.

處方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는 款冬丸方을 四物款冬丸方으로 고친 것이 있다.

8. 療癰結方第八의 比較(17)18)

『孫真人千金方』에서는 「療癰結方第八」로 十九首의 處方이었던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結脹滿第七」로 옮기면서 三十五首(目次에서는 方三十首라고 함)의 處方을 실었다. 『孫真人千金方』에 있는 麥門冬紫雙丸方을 削除시키고,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芒硝紫方을 芒硝紫丸方으로, 橘皮湯方을 桂心橘皮湯方으로 主治證과 處方名을 變更하기도 하였다. 새롭게 추가한 處方으로는 牛黃驚甲丸, 芫花丸方, 真珠丸方, 驚甲丸, 驚頭丸方, 地黃丸方, 治小兒不痢 腹大且堅方과 又方, 馬齒礬丸, 胎寒方, 治孩子霍亂已用立驗方과 又方, 治小兒霍亂方과 又方, 治少小吐痢方과 二首의 又方의 十七首의 處方이다.

9. 孩兒雜方第九의 比較(19)20)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孩兒雜方第九」로 모두 百四十五首의 處方을 실고 있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方一百二十一首와 灸法十三首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一百三十首가 실렸다.

『孫真人千金方』에서 내용이나 이름을 바꾼 것으로는 半夏熨藥方을 半夏熨方으로, 生蟹骨傳方을 生蟹骨足傳方으로, 細辛傳藥方을 三物細辛傳藥方으로 하였고 “又方 以白石脂細研, 熬令微暖, 粉臍中, 日三四度.”을 “治小兒臍汁不止兼赤腫白石脂方”으로 “治小兒瘡方 燒馬骨爲未付之.”을 “治小兒耳瘡方 燒馬骨爲未付之.”로 그 內容을 약간씩 바꾼 부분이다. 『孫真人千金方』에 있는 處方을 제외시킨 부분은 아래와 같다.

一物揪葉方, 治小頭禿瘡方과 又方, 治小兒濕癬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身上生赤疵, 治小兒身上生赤黑疵方과 又方, 治小兒臍風 遂作惡瘡 歷年不差方, 治小兒瘻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疣目方, 治小兒霍亂方과 又方, 治少小吐利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癰癰, 治小兒不利 腹大且堅方, 治小兒疥方과 又方, 治小兒月蝕瘡 隨月生死方, 治小兒月蝕, 九竅皆有者方과 又方, 治小兒浸淫瘡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瘡初起 瘰癧似火瘡 名曰烟瘡 一名爛瘡 治之方, 治小兒大利膿濕 匿方, 水銀膏方, 治小兒上下偏身生瘡方, 治小兒丹方과 又方, 治小兒頭瘡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頭不生髮方, 治小兒火灼瘡 一身盡有 如麻子小豆者 膿汁乍痛乍□方, 榻湯方, 治小兒半身皆紅赤 漸漸長引者方, 澤蘭湯, 竹葉湯, 小兒壯熱氣 實滯不去 寒熱往來 微驚怖方, 爲齒礬石丸, 千金湯, 治小兒風瘙癢疹方, 治三百日兒頭面瘡起 身髓大熱方, 治小兒身頭面患瘡方, 治小兒患瘡方과 二首의 又方, 治丹毒大腫 身壯熱 百治不折方, 治小兒赤遊腫方, 凡小兒赤遊道腫於身 人心腹即死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忽患腹痛 夭矯汗出 名曰胎寒方, 治小兒卒腹皮青黑方과 三首의 又方, 治聘耳方, 治小兒頭禿瘡 無髮藥苦癢方, 治小兒喉痺方, 治小兒手足身腫 以小便溫暖積之 良方과 又方, 治小兒遺尿

15)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39~140.

1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88~89.

17)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41~144.

1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89~92.

19)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44~156.

2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96~102.

方, 小兒食方, 治小兒凶開不合方과 又方의七十二首의 處方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治小兒鵝口 不能飲乳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心熱口爲生瘡 重舌鵝口方, 治口瘡白漫漫方, 治小兒重舌方과 五首의 又方, 治重舌方과 又方, 治小兒舌上瘡方과 二首의 又方, 治舌腫強滿方과 又方, 治小兒口瘡 不得吮乳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燕口 兩吻生瘡方, 治小兒口下黃肌瘡方, 治口旁惡瘡方, 治口噤 赤者心噤 白者肺噤方, 治小兒口噤方과 又方, 雀屎丸, 治小兒口中涎出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喉痺腫方, 治小兒喉痺方, 治小兒解頰方的 又方, 治小兒頰開不合方과 又方, 治小兒卵腫方, 治小兒氣癰方과 又方, 氣癰, 治小兒陰腫方的 又方, 除熱結腸丸, 治小兒蛔蟲方, 治小兒羸瘦有蛔蟲方과 五首의 又方, 治寸白蟲方, 治小兒三蟲方, 治小兒尿血方과 又方, 治小兒遺尿方과 三首의 又方, 地膚子湯, 小兒淋方과 二首의 又方, 治小兒小便不通方과 又方, 治小兒鼻塞不通 濁涕出方, 治小兒聾耳方, 治小兒耳瘡方的 又方, 治小兒食土方, 治小兒疔方, 治小兒誤吞鐵等物方的 五十九首의 處方이다.

小兒科에 대한 전체적인 內容을 파악해 보면 많은 處方을 제외시키고, 새롭게 추가한 處方도 많이 있어 『備急千金要方』은 『孫真人千金方』과는 處方方面에 있어서는 다른 書籍이라고 하여도 커다란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思料된다.

III. 結 論

이상으로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小兒篇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書籍사이의 가장 特徵의인 차이는 卷五를 上下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는 각 권의 分量을 調整하기 위하여 上下로 나눈 것이라고 思料된다.

小兒篇에서는 婦人篇과는 달리 많은 部分을 削除하고 方劑를 비롯하여 많은 部分에서 새롭게 추가한 部分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校正醫書局에서 校訂할 때 宋代의 醫學知識을 反映한 結果라고 하겠다.

小兒篇의 「序例第一」은 『備急千金要方』에서 論과

變蒸을 治療하는 二首의 處方을 추가하여 커다란 差異는 나타나지 않았다.

「新生孩兒初出腹方第二」에서는 新生兒의 處置, 浴兒法, 相兒壽夭法에서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內容이 유사하지만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한 部分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宋代의 發展된 醫學의 內容이 추가되어 『備急千金要方』에 反映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孫真人千金方』에서 많은 部分을 削除하고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追加한 部分도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두 서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書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즉 校正醫書局에서의 校訂作業이 學問의 標準化와 規格化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고 하지만, 原本文書와 다른 部分이 많은 것은 原本文書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시 編纂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孫思邈의 著述意圖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校正醫書局의 校訂作業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療驚癇病方第三」은 『孫真人千金方』에서는 癇에 대한 全般의인 說明으로 始作하여 候癇法, 灸法, 五藏癇候, 六畜癇候, 診候小兒法과 處方의 順序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小兒에 風癇, 驚癇, 食癇의 症狀과 治療法을 追加하고, 候癇法과 活用할 수 있는 處方을 記錄하였다. 이는 『備急千金要方』을 校訂하는 방식에 따라 症狀과 治療法의 順序로 記錄하여 읽기에 편리하게 한 부분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大黃湯, 白羊藜湯, 增損續命湯, 治少小中風 狀如欲絕湯方, 二物驢毛散方, 鎮心丸, 丹參赤膏方, 五物甘草生摩膏方的 八首의 處方을 追加하였고, 處方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는 『孫真人千金方』의 五物桂湯方을 桂枝湯으로 바꾼 것이 있다.

「療客忤方第四」는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客忤 魅病 夜啼 驚啼 瘡病 등에 대하여 一貫性이 없이 記錄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客忤에 대한 論과 處方과 咒客忤法을 記錄하고 이어서 小兒魘方, 小兒夜啼方, 治小兒驚啼方的 順序로 記錄하였다.

客忤 部分의 論을 追加하고, 一物豬通浴湯, 二物黃土塗頭方, 治小兒中馬客忤而吐不止者方的 處方을 追加하였다. 小兒魘方에서는 “治魘方伏翼, 熟咀哺之.”

라는 文章을 追加하였고, 小兒夜啼方에서는 千金湯을 追加하였다. 이렇게 追加된 處方들은 대부분이 宋代의 臨床醫學知識이 反映된 것이라고 하겠다.

「療癰疽癰癰方第五」는 『孫眞人千金方』에서는 「療癰疽癰癰方第五」에 있던 것으로 處方 九首를 실고 있다.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疽癰癰第八」로 옮기고 論一首와 方六十三首, 灸法一首로 고쳐놓았다. 『備急千金要方』에는 아래와 같이 새롭게 추가된 處方이 상당히 많아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備急千金要方』에서 處方 六十三首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七十三首가 있어, 校正醫書局에서 正確하게 校訂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타난다.

「治傷寒方第六」은 『孫眞人千金方』에서는 「治傷寒方第六」으로 되어 全體的인 順序가 바뀐 部分이다. 그러나 全般的인 內容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孫眞人千金方』의 三十二首의 處方에서 芍藥解肌湯을 芍藥四物解肌湯으로, 二物雷丸通汗散方을 二物通汗散方으로, 黃連粉方을 三物黃連粉方으로 名稱을 달리한 것이 있고, 六首의 處方을 削除시키고, 十首의 處方을 追加하여 모두 三十六首의 處方을 실었다. 『備急千金要方』에는 三十首의 處方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三十六首의 處方이 記錄되었다.

「療咳嗽方第七」은 『孫眞人千金方』에서는 「療咳嗽方第七」에 있는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卷五下少小嬰孺方下」의 「咳嗽第六」으로 옮기면서 九首의 處方에서 五味湯을 削除시키고, 六首의 處方을 追加하여 十四首의 處方으로 構成하였다. 款冬丸方을 四物款冬丸方으로 고친 것이 있다.

「療癥結方第八」은 『孫眞人千金方』에서는 「療癥結方第八」로 十九首의 處方이었던 것을 「癥結脹滿第七」로 옮기면서 三十五首(目次에서는 方三十首라고 함)의 處方을 실었다.

「孩兒雜方第九」는 『孫眞人千金方』에서는 「孩兒雜方第九」로 모두 百四十五首의 處方을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七十二首의 處方을 삭제하고 五十九首의 處方을 追加하여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方一百二十一首와 灸法十三首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一百三十

首가 실렸다.

『孫眞人千金方』에서 내용이나 이름을 바꾼 것으로는 半夏熨藥方을 半夏熨方으로, 生蟹骨傳方을 生蟹骨足傳方으로, 細辛傳藥方을 三物細辛傳藥方으로 하였고 “又方 以白石脂細研, 熬令微暖, 粉臍中, 日三四度.”를 “治小兒臍汁不止兼赤腫白石脂方”으로 “治小兒瘡方 燒馬骨爲未付之.”을 “治小兒耳瘡方 燒馬骨爲未付之.”로 그 內容을 약간씩 바꾼 부분이다.

이상의 內容을 總括하면 『備急千金要方』의 校訂例에서 言及한 內容처럼 全體的인 編次를 醫論으로부터 始作하여 處方에 이르는 順序로 記錄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잘 지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校正醫書局에서 原書의 本래 모습을 많이 變更하여 原著者의 意圖를 파악하기 힘들게 校訂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校正醫書局에서의 校訂作業의 正確性이나 原本 文書에 대한 充實性 등에 대해서도 깊은 研究가 進行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IV. 參考文獻

1. 金容辰, 『孫眞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대한 比較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3). p.4.
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73~74, 74~77, 77~82, 82~84, 84~87, 88~89, 89~92, 92~96, 96~102.
3.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金方(附 眞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15~116, 116~122, 122~128, 128~132, 132~134, 134~139, 139~140, 141~144, 144~156.